

#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사기 기승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해 수천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 등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유사수신 사기범은 총 1294명으로 드러났다. 2016년 대비 19.2%가 늘어난 결과다.

21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상운 검사장)는 “최근 FX마진거래, 핀테크,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준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사해 적발한 사기사범은 1294명이다. 2015년에는 633명, 2016년에는 1085명이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도 2013년 83건에서 지난해 712건으로 5년 새 9배 가까이 늘어났다. 유사수신 범죄로 일건째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13년 1532명에서 지난해 322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가상화폐 투자자 가상화폐 채굴을 미끼로 돈을

작년 1294명 적발...2016년 대비 19.2% 증가

금융·부동산·투자사업 사칭... 고수익 의심

가로채는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인천지검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54개국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2700억원을 빼돌린 사기조직을 적발해 30명을 입건하고 그중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도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7개월만에 2배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만2000명에게 370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또 사설금융펀드를 운영하면서 선불음선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93억원을 빼돌린 유사수신 업체 모집책 등 10명이 적발된 사례와 크라우드펀딩을 빙자해 220여명으로부터 147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도 적발됐다.

검찰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서민층이 주 타겟이 돼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 컨설팅·FX마진거래·비상장주식 등 금융업 사칭 ▲부동산 경매사업·펜션고급빌라 개발·해외까지 노 등 부동산 관련사업 사칭 ▲가상화폐·전자금융·크라우드펀딩 등 투자사업 사칭이다.

보통설계사를 투자자 모집인으로 활용하거나 여행 상품과 결합한 다단계식 소액 투자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권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보장 내지 고수익 약속의 경우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설명 내용을 녹음하고 계약서·팸플릿 등 자료 확

보가 필요하다”고 대응요령을 설명했다.

법원도 유사수신 사기조직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농아인 복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농아인 150여명에게 97억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 사기조직에 대해 최초로 범죄단체를 적용한 사례다.

수원지법에서도 주식투자를 빙자해 330여원대를 빼돌린 유사수신 업체 대표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유사수신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검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에 엄정 대처하고 범죄단체 혐의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스

## 인도, 18억 달러 사기사건 용의자 11명 체포

인도에서 16억 달러(약 1조 9844억원)규모의 은행 사기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체포된 용의자 11명으로 늘었다.

수사 당국은 20일 6년 전부터 벌어진 이번 은행사기사건 관련 주요 용의자 2명이 운영하는 보석회사들을 조사하면서 경영진 5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주요 용의자인 재벌 보석상 니라브 모디와 그의 삼촌 메홀 축사의 행방은 현재 미연하다.

중앙수사국(CBI)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체포된 경영진 5명은 파이어스타 그룹 등 모디와 축사가 운영하는 회사들에서 근무하며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이 모두 11명이라고 밝혔다.

모디는 가짜 은행거래 내역을 담은 서신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대출을 진행한 은행은 국영펀드펀드국영은행(PNB)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론 제물리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PNB의 운영과 회계감사 부실을 비난하면서 “이번 사건은 국가와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비용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차입·추가 사건 조사 등 간접비용도 초래했다”고 밝혔다.

## 미 전투기, 日 호수에 연료탱크 버려 논란

아오모리현 주일미군 기지 소속 전투기 1대가 이륙 직후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료탱크를 인근 호수에 버리고 긴급 착륙한 것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연료탱크가 떨어진 호수 주변에는 제철잡이물 하던 10여척의 어선과 어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조업중이던 어민들이 많이 놀란 데다가 이날 잡은 제철도 출하하지 못하는 등 피해도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이륙한 미공군 제 35 전투항공단 소속 F16 전투기의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투기 조종사는 연료탱크 2기를 인근 오가와라(小川原) 호수에 버리고 기지로 돌아와 긴급착륙했다.

당시 호수에서 제철잡이 중이던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는 “핑음이 울리면서 얼음이 언 호수 위에 뭔가 물체가 떨어지면서 약 15m의 물줄기가 치솟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엄청난 물보라에 놀랐는데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오가와라 호수는 연평균 약 1200t의 제철이 잡히는 일본 제1의 제철 산지다. 제철은 제철인 지금이 가장 맛있고 가격이 비싸다.

오가와라 어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호수에서는 100여척이 조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조업도 중단됐으며 이날 채취한 제철도 출하지 않기로 했다. 기름이 흘러나와 제철에 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철과 함께 이 호수에서 많이 잡히는 방어, 뱀어 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리아 구타 공습에 이틀새 250명 사망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 대대적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틀 만에 250명이 숨지고 1000명이 다쳤다. 시리아에서 ‘홀로코스트’(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같은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20일(현지시간)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와 외곽 동구타 지역에 이틀째 공습과 포격을 이어가면서 이날만 최소 10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이 보도했다.

SOHR은 이틀새 이틀 만에 동구타에서 250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거나 불구가 됐다고 전했다. 시리아 의료구조 단체 연합(UMCRO)은 공습으로 병원 10곳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시리아 반군단체 ‘이슬람군’의 모하메드 알로쉬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정권에 의해 새로운 홀로코스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러시아와 이란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이 “2차 대전 이래 전례 없는 사탄의 동맹”을 맺었다고 비판했다.

인명을 요구한 한 다마스쿠스 주민은 건물 복도에 숨어서 공습을 지켜봤는데 규모가 몇 달 새 최대였으며,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다고 증언했다. AP통신은 전했다. 현지에 있는 활동가들은 정부군이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동구타 일대에서 훨씬 더 광범위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엔 중재 시리아 평화 협상에 반군 대표로 참가해 온 나스르 알 하리리는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군이 동구타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소원풍선 날리는 새내기들 21일 오전 부산 사상구 신라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2018학년도 입학식에 참가한 신입생 2100여 명이 각자의 소망을 적은 리본을 매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 전국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10명 소재 불명

교육부는 올해 취학 대상 아동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0명이라고 밝혔다. 작년 같은 시기 98명에 비해선 감소한 숫자다.

교육부는 경찰청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은 시·도교육청별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실

시했다. 지난해 예비소집 최종일이 2017년 1월20일이었던 것에 비해 8일 앞당겨 실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을 통해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협력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내교 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

교장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아동소재 조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 아동 48만424명중 현재(20일 기준)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0명이다.

작년 같은 시기의 소재 파악 중이었던 아동 98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뉴스스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건강기 건강진단
- 영양아 건강검진
- 임 검진
-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 항목	진행률
건강진단 받기	42%p 감소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18%p 감소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